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협력과 제안

- 자립생활주택과 장애인복지관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1. 들어가며 “소중한 만남, 함께 걸음의 시작”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013)
- 탈시설 후 자립하는 장애인 증가 되었음
-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접근 미흡
- 2018년 서울시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으로 자립생활주택과 연계 형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고민 시작

II. 협력 사례

1. 강동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과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가. 만남 :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주민으로 첫 만남 시도

사전 정보 파악
빨간 립스틱

찾아가서
인사

손수 쓴
초대장



“초대장을 입주자들에게 읽어주니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이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깊숙이 보관하는데 초대장이 그랬어요.”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자연스럽고 즐거운 만남 그리고 복지관과 서비스 소개, 지역 내 이용가능 한 서비스 안내

“처음 복지관을 찾은 봄날,
복지관 시설과 프로그램을 입주자 시각에 맞춰서 설명하고,
보호작업장 파니스의 카페테리아,
복지관 옆 양로원의 동산 등 개방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니 입주자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사업적인 만남이 아닌 정서적으로 가깝고,
좋은 이웃이자 가족과 같은 진심이 느껴졌죠.”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가족지원상담센터 직원들이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에게
전한 사진 앨범 선물

2.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



2019년 5월 9일 강동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의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기술교육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서적 지원, 건강관리, 문화예술활동 등의 협조와 공통 분야에 대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상호교류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지원 부분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3. 서비스 연계와 중간 평가

가. 건강과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한 종합평가

입주자 지원에 중요한 결과와 내용이 나옴

〈의료진단 및 평가 결과〉

- 01 /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등록 되었던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의료진단 결과 자폐성장애와 뇌병변 소견을 보임.
- 02 / 지적장애이나 자폐성향을 보였고, 정신질환 소견도 있었음. 감각통합장애도 있어 특정 감각에 예민한 모습이 관찰 됨.
- 03 / 걷는 모습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 관찰, 한쪽 팔과 손을 주로 사용하는데 뇌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파악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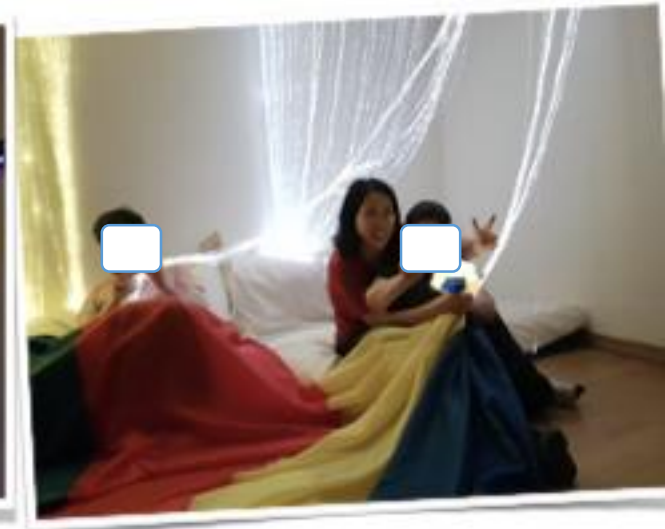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가 전하는 도움이 된 부분〉

- 01 / 지적장애로만 알고 자폐성향은 몰랐으며, 표현을 하지 않을 뿐, 지적능력은 더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진단 이후 선택권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됨.
- 02 / 걷는 모습과 한쪽 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용을 해 왔다고만 생각했지 뇌손상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은 몰랐음.
- 03 / 상담 결과 감각통합장애가 있어 촉각, 구강 감각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단 이후
식습관 지도나 일상생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됨

나. 서비스 연계 <스누젤렌> 여러 자극을 통해 다양한 인식 영역에서 이완과 활성화 유도

특별히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은 평소에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관계로 스누젤렌실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기를 직접 탐색해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서 앉아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스누젤렌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누젤렌실이 주는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 속에서 입주자들은 눈빛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과 때로는 울고, 화내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자, **입주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코디네이터





수중재활센터 자유수영을 위해
수영복을 고르면서
이 분들이 처음으로
블라우스를 구입했다고 해요.

〈수중운동 서비스〉
셔틀버스 이용과 수영복 구입

〈중장년 성인발달장애인 여가 서비스〉
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

다. 중간평가 : 작은 파티



주요내용

- 복지관과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기회**가 발생함
- 매주 일정한 외출로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증가됨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주자들의 **감정표현과 의사 전달이 적극적이게** 됨
- 주택이 아닌 다른 공간, 다른 활동으로 지원자들이 **입주자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종합평가**를 통해 입주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됨
- 복지관이 활동지원사와 코디네이터가 입주자의 **자립을 위해 의논할 좋은 파트너**가 됨

2.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평가지원 사업

서류와 서명만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를 위한
실천과 보통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시복지재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2018년 10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복지재단

자립생활 입주자의 자립지원체계수립을 위한 전문가 종합 평가 및 협력 구축

지원인력 상담 및 입주자 지원 협력 추진

언어 · 직업 · 심리진단 등 추가 진단 필요 여부 판단 및 지원

두 기관의 협력과 교류 분야 개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운영
법인

99 푸르메재단
Purme Foundation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동로 201 / 02-440-5700 / www.seoulrehab.or.kr

< 사업개요 >

- 종합평가팀 : 재활의학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례에 따라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포함)
- 기간 및 평가일 : 2018년 10월 ~ 12월 주 2회 (매주 화, 금)
- 대상 : 17개 다형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4명
- 시간 : 1명 당 약 2~4시간
- 예산 :
종합평가비용 : 각 자립생활주택에서 납부(1인당 약 5만원)
의사 수당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담(재원 : 후원금)

사례_25세 지적장애 2급

- 자폐성 장애로 재판정 소견, 트라우마
- 자폐성 특성을 ADHD로 대처

사례_23세 자폐성장애 1급

- 뇌 손상에 의한 뇌 병변 장애 동반
- 저체중으로 고단백, 고열량식 필요

사례_57세 지적장애 1급

- 지적 장애 1급이나 지능검사 결과 지능이 70이상으로 나타남
- 강박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나 자폐성향으로 인한 특성

< 종합평가 후 상담 사례 : S씨 >

- 요통에 대한 재활의학과 진료 시급
- 안과 진료(새 안경 점검 및 일반적인 안과 사항 점검)
- 정신과에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이름, 효능, 부작용에 대한 자료 비치 및 투약 필요성 재 점검
- 가려움증에 대한 피부과 1차 진료 및 정신과 2차 진료 필요
- 긍정적 행동 지원필요---일관성
- 보청기 처방 및 적용, 청능 훈련 필요
- AAC 사용 훈련 지속 및 독려
- 유전학 클리닉 진료(필수 사항 아님)
- 장애 중복 합산 시 전체 장애 등급은 1급이므로 이에 대한 합산 판정 필요
- 수영이나 타 수중 활동 도움
- 장애등록 급수 1급으로 변경 필요함(중복 합산)

< 종합평가 후 상담 사례 : k씨 >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 중 궁금한 점
(청각에 대한 감각통합문제)
- 약물 복용 상담
-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활동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상담
- 직업평가 의뢰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법

〈평가 후 자립재활주택에서 기대하는 복지관의 역할〉

한 번의 평가가 아닌 **지속적으로 궁금함을 물어볼 수 있는 곳**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병원 안내와 추천**

주민들과 소통 지원

**다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입주자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논의할 회의체**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지원

2019년 < 자립생활주택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 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

-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
- 1) 대상 확대 : 자립생활주택 가형 40명, 다형 12명(재평가) 총 52명
- 2) 주요내용 :
 - 가형 입주자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진단 평가 및 컨설팅
 - 다형 입주자 재평가 및 컨설팅
- 3) 인력 :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직업평가사 등
- 4) 기타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인근 거주지 복지관 이용시 종합 진단결과 공유

III. 제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강화

탈시설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3.5%.

탈시설 희망자 중 활동보조지원, 생계, 주택, 의료 등
다양한 지원 희망.

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 축적과
다영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평가지원**
 - 다 영역에서 평가 진행
 - 해당 지역 의료기관 연계
- **당사자 중심의 사례회의의 허브 역할**
 - 다양한 기관으로 받은 정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 사례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모니터링 역할
- **지역의 서비스 소개와 입주자 연계**
 - 지역에서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소개
 - 서비스 기관과 입주자 연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PCP 수립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

○ 지역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시민옹호, 스몰 스파크와 연계

- 입주자와 지역 내 시민옹호인 연계
- 이웃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지원 : 스몰스파트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

입주자들의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위한 종합평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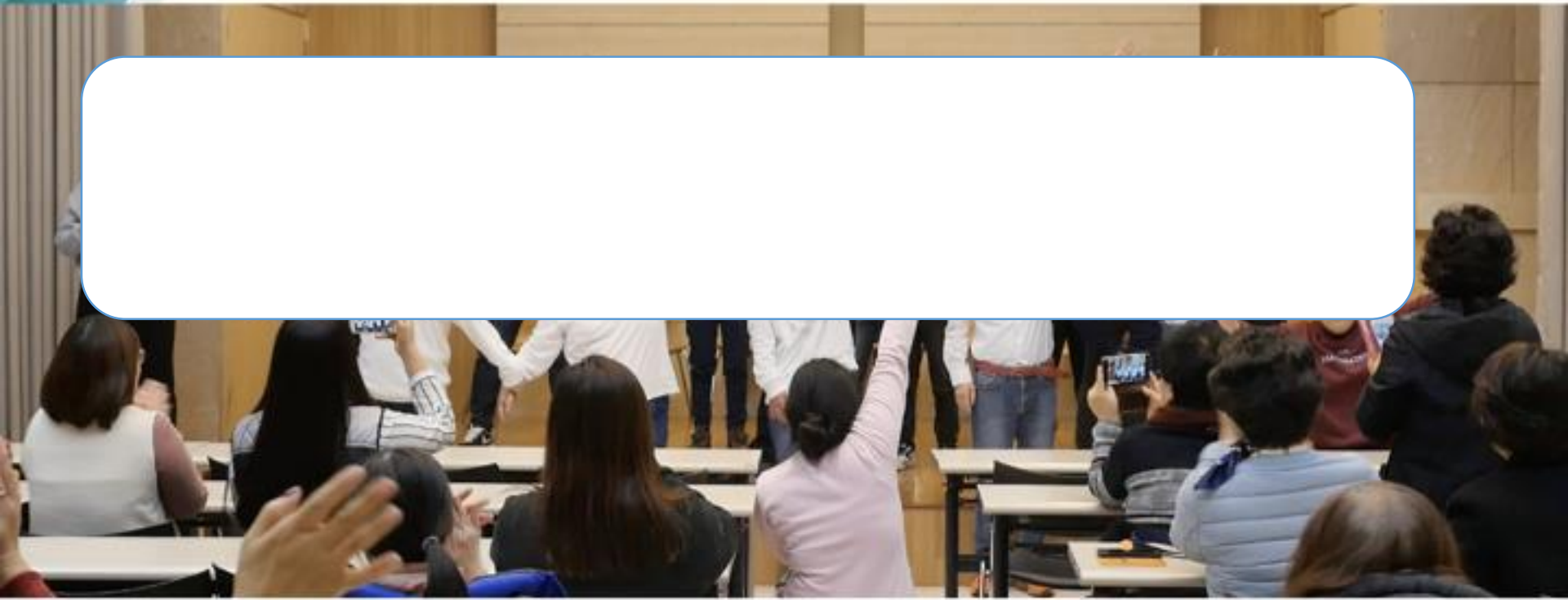
-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은 필수
-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평가 필요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주택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연계사업 사례 보급
- 복지관과 주택을 운영하는 리더 대상의 연계 구축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주택 실무자 연계 사업 지원

자립생활주택의 역할

- 01 /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 02 / 지원자(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
- 03 /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실패할 권리 인정
- 04 / 지역 이웃과 관계 형성
- 05 / 입주자들의 권리지원과 선택권 강화
- 06 / 미래계획 준비



2018년 11월 20일(화)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푸르메음악회>

지역사회중심의 협력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강화로
탈시설 장애인분들이
이웃 속에서 행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